

코스 : 삼릉가는 길

매월 1토요일 09:30 ~ 13:30

출발 : 월정교 주차장

가는곳 : 서남산 둘레길

삼릉 가는 길

삼릉 가는 길은 남산의 서쪽 기슭을 걷는 신라의 역사를 찾아가는 길이다. 특히 역새가 피어나는 가을 들판 풍경은 아련한 고향의 풍경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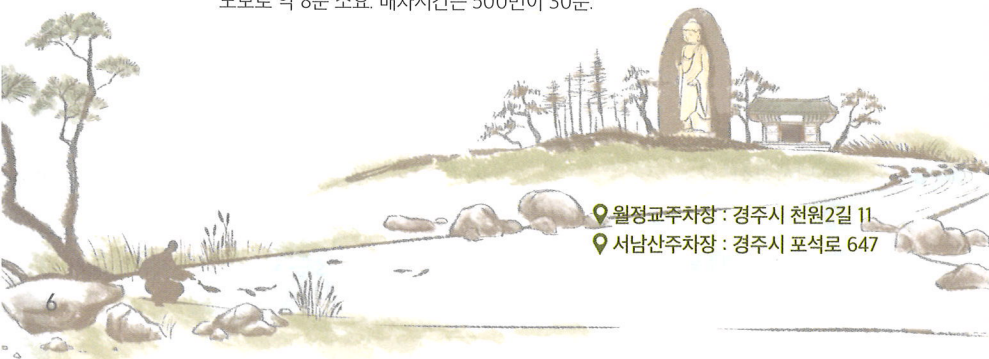
최근 복원된 월정교로부터 신라 초기의 유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도당산, 천관사지, 오릉, 나정, 남강사지, 창림사 등 신라 초기의 역사유적과 망국의 한이 서려있는 포석정을 볼 수 있고, 계속하여 지마왕릉,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삼릉으로 이어진다.

이 길은 군데군데 유적과 심터가 있으며, 험한 길은 없으나, 유적지를 이동하는 사이사이 숲길에 적어 햇빛을 가릴 모자와 양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체 길은 8km 정도 되며,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월정교 주차장에 승용차를 두었으면, 삼릉에서 시내로 향하는 시내버스(모두 가능)를 타고 탐리마을에서 내리면 된다.(걸어서 10분)

- 월정교 찾아가기 -

- 도 보 : 버스터미널, 경주역 등에서 약 15~30분 소요.
- 승 용 차 : 고속도로 나와서 3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오릉방향)하여 700m 정도 진행하여 다리(남천교) 직전에서 우회전 하여, 650m 지점에서 월정교가 보이며, 그 앞에 월정교 주차장이 있다.
- 택 시 : 시내에서 월정교 주차장으로 가면 됨. 5~10분 소요.
요금 3,000~5,000원 정도.
- 시내버스 :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앞은 아님), 경주역 등에서 내남행(500, 502, 505, 506, 507, 508번) 버스를 타고 탐리마을에서 하차(약 10분 소요), 월정교 방향 도보로 약 8분 소요. 배차시간은 500번이 30분.



📍월정교주차장 : 경주시 천원2길 11

📍서남산주차장 : 경주시 포석로 647



- 6 ○ 삼릉 가는 길
- 8 ○ 쉽게 찾아가는 삼릉 가는 길
- 34 ① 월정교
- 35 ② 도당산과 화백정
- 36 ③ 천관사지
- 38 ④ 오름
- 39 ⑤ 월암종택
- 40 ⑥ 나정
- 41 ⑦ 육부전
- 42 ⑧ 남간사지
- 43 ⑨ 일성왕릉
- 44 ⑩ 창림사지
- 46 ⑪ 포석정
- 47 ⑫ 지마왕릉
- 47 ⑬ 태진지
- 48 ⑭ 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
- 49 ⑮ 삼릉
- 50 ⑯ 경애왕릉
- 51 ⑰ 입곡 석불두



쉽게 찾아가는 삼릉 가는 길

- 도로
- 도로(차량 금지)
- 답사길(산길)





○ 월정교^①

사적 457호

월정교는 신라 천년 궁성이었던 월성을 감싸고 흐르는 문천 위에 놓인 다리다. 서라벌의 남쪽에서 왕경의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또한 왕궁에서 남산신성과 남산의 수많은 절들로 가는 통로이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인왕사, 천관사, 나정과 신궁, 창림사, 포석정, 오름, 삼릉 등 수 많은 역사유적과 만나게 된다.

『삼국사기』에 “**경덕왕 19년(760) 2월 궁궐 남쪽 문천 위에 월정(月淨)·춘양(春陽) 두 다리를 놓았다.**” 하였다. 당시 신라는 18만호 규모의 국제적인 대도시였고, 천년 역사 중 정치적·문화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번영하던 시기였다.

이후 고려 충렬왕 6년(1280)에 수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520년 이상 사용되었던 다리이다. 발굴조사결과 4개의 교각과 길이 63m, 폭 12m로 회랑 형태의 누각형 다리임이 확인되어 그렇게 복원하였다.

경덕왕 24년(765) 3월 3일 충담스님이 이 다리를 건너 귀정문(歸正門)에서 경덕왕을 만나 차 한 잔 올리고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올렸다.

삼금은 아버지요,
산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시고,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여기시며,
백성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줄 알리이다.
궁궐거리며 사는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스스로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라 안이 가히 되어 감을 알리이다.
아 ~ 아 ~ 삼금람제, 산하람제, 백성람제 한다면,
나라 안은 태평 할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남산을 내려와서 요석궁으로 들어갈 때 물에 빠진 다리는 19m 아래에 있던 유교(楸橋:느릅나무다리)였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1)에서 걸어서 4분



도당산과 화백정②

남산에서 북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머리에 솟은 산이 도당산이다. 세 봉우리로 이루어진 작은 산이며 월성에서 마주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산이다. 이 산에는 원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 도당토성으로 불리어지며, 『삼국유사』 <진덕왕>조에 기록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령지의 우지암으로 추정되고 있다.

28대 진덕왕때 알천공·임종공·술종공·호림공·염장공·유신공이 남산의 우지암에 모여 나라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큰 범 한 마리가 좌중에 뛰어 들었다. 모두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담하면서 범의 꼬리를 잡아 땅에 매쳐 죽였다. 알천공의 완력이 이와 같아 뒷자리에 앉았으나, 여러 공들은 유신공의 위엄에 감복하였다. 신라에는 네 곳의 신령스러운 땅이 있어 나라의 큰일을 의논할 때 그곳에 모여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 첫째는 동쪽의 청송산이요, 둘째는 남쪽의 우지산이요, 셋째는 서쪽의 피전이요, 넷째는 북쪽의 금강산이다.

2016년 남산탐방길을 조성하면서 화백정을 세워 놓으니, 이곳에서 월성과 월정교 등 신라도성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화백(和白) - 『新唐書(신당서)』 『東夷列傳 新羅(동이열전 신라)』편에 있다.

...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그만두었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1)에서 걸어서 10분



○ 천관사지^③

사적 340호

절터는 도당산 서쪽 기슭에 있으며 신라시대 김유신이 사랑하던 기생 천관(天官)의 집을 절로 바꾼 곳이라고 고려시대 이인로의 『파한집(破閑集)』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김유신은 어머니 만명부인의 엄한 훈계를 명심하여 함부로 삼과 사귀지 않았지만, 하루는 우연히 기생 천관의 집에 유숙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훈계를 들은 뒤 천관의 집에 들르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말이 이전에 다니던 길을 따라 천관의 집에 이르렀다. 김유신이 잘못을 깨닫고 타고 갔던 말의 목을 베고 안장을 버린 채 돌아 왔다. 훗날 김유신은 삼국을 통일한 뒤 사랑하였던 셋 여인을 위하여 천관의 집터에 절을 세우고 그녀의 이름을 따서 천관사(天官寺)라 하였다. 절의 역사는 알 수 없으나 고려 중기 『파한집』에 동도(東都)에 천관사가 있다고 하여, 당시까지는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36대 해공왕 16년(780)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상대등이던 김양상과 김경신이 난을 진압하였으나, 왕은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선덕왕(780~785)이다.

이찬 김주원이 처음에 상재(上宰)가 되고 왕은 갇간으로서 이재(二幸)에 있었는데, 꿈에 복두를 벗고 흰

것을 쓰고 12현금(거문고)을 들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잠을 치게 했더니 "복두를 벗은 것은 벼슬

을 잃을 징조요, 현금을 든 것은 목에 칼을 쓸 징조요, 우물 속

으로 들어간 것은 욕에 간칠 징조입니다"했다. 왕은 몸

시 근심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때 아찬 여삼

이 와서 꿈을 다시 풀이하기를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앉는 이가 없음이요, 흰 것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

조요, 12현금을 든 것은 12래손까지 왕위를 이어갈 징

조요, 천관사 우물에 들어간 것은 궁궐에 들어갈 상서

로운 징조입니다." 왕이 "위에 주원이 있는데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이오?" 아찬이 "비밀히 북한신에게

제사지내면 좋을 것입니다"하니 이에 따랐다. 얼마 후 선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김주원을 왕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의 집이

북천 북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넷물이 붙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이에 왕

이 먼저 궁에 들어가 왕위에 오르자 대신들이 모두 와서 새 임금에게 축하를 드

리니 이가 원성대왕이다.



이후 몇몇 때까지의 18왕들은 모두 대왕의 후손이었으니 꿈의 응험이었다.

원성왕의 이야기에서 볼 때, 천관사는 신라의 왕위계승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성왕을 전후한 시기에 천관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찰로, 한 여인이 살던 집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관(天

官)은 일관(日官), 해관(海官) 등과 같이 왕에게 정치적인 자문을 담당하던 관

리로, 여인의 이름이 아닌 천운(天運)을 살피던 샤먼(shaman) 성격의 제관(祭

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있던 천관사는 발굴조사와, 특이한 모습(이중기단에

팔각 탑신과 팔각 옥개석)의 삼층석탑을 복원하였다. 또한 팔부중상이 있는

전형석탑의 부재도 절터에 남아 있으며, 일부는 박물관에 옮겨졌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걸어서 6분

월암종택^⑤ ○

국가민속문화재 34호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창의(倡義: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하신 김 호 장군(1534~1592)의 고택이다. 장군은 1570년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봉사를 끝으로 20여 년의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여 있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경주의 각 군현을 다니면서 민심의 안정을 꾀하고 적진을 공략하였다. 큰 공을 세워 부산 첨사에 제수되었으나, 1592년 8월 경주 노곡전투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전사하여 임지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영조 34년(1758) 다시 형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종택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민가 건물 중 하나로 옛 건축 수법과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안채, 왼쪽에 아래채, 오른쪽 뒤편에 가묘가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 높은 곳에 사랑채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안채의 구성은 ‘一’자형 외줄박이 홑집으로 단순하지만 대청 고방(庫房) 앞에 문짝을 달았다는 점과, 아래채 굴뚝이 부뚜막 한 곳에 둔 것이 특이하다. 이곳은 신라시대 절터로서, 지금의 건물은 17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주변에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석조물들이 있고, 마당의 우물뚜껑돌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후손이 살며 가풍을 이어가고 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인심도 후하여 쉬어가기가 좋다. 고택 체험도 할 수 있다.

📍 경주시 식혜골길 35



○ 나정^⑥

사적 245호

신라시조 박혁거세거서간이 탄강하신 전설을 간직한 우물이 있던 자리라고 알려져 있었다. 신라가 세워지기 전 경주 일대는 진한의 땅으로 육부춘장들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다.

전한 지절 원년 임자(BC69) 3월 초하루에 육부의 조상들이 알천의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려도 켜 있는 사함을 찾아 군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여야 하지 않겠소!”하였다. 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의 우물가에 이상한 기운이 땅에 드러나고, 흰 말 한 마리가 뚫어랴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 살펴보니, 자줏빛 알 한 개가 있었다. 알을 깨어보니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답다. 동천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췄다. 이에 그 아이를 혁거세왕이라고 이름하고 호를 거슬한이라고 했다.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

최근까지 소나무 숲 가운데 조그마한 비각이 하나 있었다, 그 뒤에 주춧돌로 보이는 네 개의 돌이 규칙적으로 사방에 둘러져 있었고, 가운데는 우물을 덮은 것으로 알려진 넓은 판석이 놓여있었다. 비석은 조선 순조 3년(1803)에 세워졌다. 2002년 나정의 비각을 다시 지으려고 일대를 발굴하면서 그동안 추정해온 나정의 신비로움이 실제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완전한 팔각형 기단을 갖춘 건물터(한 변 8m 정도, 지름 20m, 넓이 300㎡)와 그 주위를 둘러싼 4각의 담장 유구가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연화문과 수막 새, 암막새 등 특수 기와도 출토되었다. 팔각의 건물 유적과 우물 등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제사 터이며, 신궁으로 가장 중요시되던 공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신화로만 여겨졌던 신라 건국이 실존의 역사로 확인된 발굴이었다. 이 터에 신궁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 경주시 탑동 700-1



셋날 진한의 땅에 육촌이 있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이니, 촌장은 알평이다. 처음에 표암봉에 내려오니, 이가 금강부 이씨의 조상이 되었다. 둘째는 돌산 고허촌이니, 촌장은 소벌도리이다. 처음에 형산에 내려오니 이가 사량부 정씨의 조상이 되었다. 셋째는 무산 대수촌이니, 촌장은 구례마이다. 처음에 이산에 내려오니 이가 점량부 손씨의 조상이 되었다. 넷째는 자산 진지촌이니, 촌장은 지백호이다. 처음에 화산에 내려오니 이가 본피부 최씨의 조상이 되었다.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이니, 촌장은 지타이다. 처음에 명활산에 내려오니 이가 한기부 배씨의 조상이 되었다. 여섯째는 명활산 교야촌이니, 촌장은 호진이다. 처음에 금강산에 내려오니 이가 습비부 설씨의 조상이 되었다.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

육부전은 신라 건국의 주체였던 육부촌장들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향사를 지내는 곳으로, 1970년에 건립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성씨의 순서와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이씨, 최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 그러나 육부전에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시조> 조의 육부순서에 따라 알천양산촌(은열왕, 이알평), 돌산고허촌(문열왕, 최소벌도리), 취산진지촌(감문왕, 정지백호), 무산대수촌(문의왕, 손구례마), 금산가리촌(장열왕, 배지타), 명활산교야촌(장무왕, 설호진) 순으로 위패를 모시고 있다.

📍경주시 남간길 37-10



○ 남간사지^⑧

당간지주 · 보물 909호

『삼국유사』 <원종흥법 염촉멸신>조에 “원화 연간에 남간사의 승려 일념이 충하분에 불결사문을 지었는데, 이 사실이 자세히 실려 있으니 ...”

법흥왕 14년(527) 왕이 불법을 크게 일으키고 이차돈이 순교한 내용을 남간사의 승려 일념이 원화 연간(806~820)에 이차돈의 무덤에 향을 피워 예불을 올리는 모임을 결성하고 결의문을 지어 비를 세웠는데, 비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는 기록이다.

『삼국유사』 <해동향류>조에는 “승려 혜통은 그 씨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백의로 있을 때 그의 집은 남산 서쪽 기슭인 은천동 어귀(지금의 남간사 동리)에 있었다. 어느 날 집 동쪽 시냇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그 뼈를 동산에 버렸다. 이튿날 새벽에 나가보니 그 뼈가 없어져 핏자국을 따라 찾아가니 뼈는 살면 굴로 되돌아가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 쭈그리고 있었다. 한참이나 바라보고 이상히 여겨 감탄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여 이름을 혜통으로 바꿨다.”

📍 경주시 남간길 65



위 이야기로 보아, 남간사는 통일 후 31대 신문왕 이후, 41대 헌덕왕대 이전에 창건된 것을 알 수 있다. 남간마을 곳곳에 절터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목탑터, 석탑재, 하수구, 팔각 대석, 주춧돌, 장대석들이 흩어져 있으며, 신라 때부터 최근까지 사용되던 우물이 있고, 마을의 남쪽 들판에는 남산에서 유일한 당간지주가 우뚝 서 있다. 당간지주는 절에 행사가 있을 때 불보살의 위덕을 표시하는 깃발을 올리는 당간을 지탱하는 돌기둥이다. 높이 3.6m이며, 위로 올라 갈수록 폭이 좁아져 안정감을 준다.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해 흙을 판 ‘+’자형 간구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당간지주에서 바라보는 절터는 그 옛날 이 절이 얼마나 웅장하였는지 실감나게 한다.

일성왕릉^⑨

사적 173호

일성이사금(재위 134~151)은 재위 중 북쪽 변방으로 침입하는 말갈을 막았다. 특히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며 식량은 백성들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주·군에서는 제방의 수리를 완전하게 하여 논밭을 널리 개척하게 함으로써 농본정책을 펴고, 백성들이 금은주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여 사치를 못하도록 하였다. 무덤은 밀뿌리에 돌을 돌려 봉분을 보호하도록 했고, 위로 흙을 쌓아 만든 원형봉토분이다. 왕릉은 1730년경 박씨 종중에서 열조(烈祖) 현창사업으로 지정되었다.

📍 보광사(경주시 남간길 99)에서 걸어서 3분



○ 창림사지^⑩

탐·보물 1867호

창림사지는 나정에서 탄강하산 박혁거세와 알영비를 받들어 길렀던 신라 최초의 궁궐터이다. 통일 후 옛 궁궐터에 절이 세워졌는데, 김생이 지은 창림사비가 있었다고 하여 38대 원성왕 7년(791)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단으로 이루어진 넓은 절터에는 삼층석탑과 석탑재, 수많은 주춧돌, 쌍귀부, 석등연화대 등이 남아있다.

절터에 우뚝하게 솟아 있는 삼층석탑은 남산에서 가장 큰 석탑이다. 상륜부가 없어졌음에도 높이는 6.5m에 달한다. 상륜부가 있었다면 9m에 이르는 거대한 탑이 된다. 절터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풍광이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탑의 규모도 엄청나지만 팔부중상이 가장 먼저 새겨진 석탑이기도 하다. 상층 기단에 아수라, 용, 천, 마후라가(뱀)만 남아있는데, 이 탑을 시작으로 팔부중상이 새겨진 탑들이 서울과 지방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탑은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파괴되어 쓰러져 있던 것을 1979년에 없어진 부분을 보충하여 복원했다.

이 탑과는 별도로 아래에 위치한 절터에서 팔부중상이 새겨진 쌍탑이 발굴되었는데, 이 탑은 1824년 석공들이 묘지석의 공정을 줄이려고 무너뜨리면서, 「무구정탑원기」가 발견되어 46대 문성왕이 발원하여 855년에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국유사』 <전후소장사리>조에는 “**당 태종5년(851) 당나라에 갔던 사신 원홍이 불아(佛牙)를 가져왔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신라 문성왕대이다**”라고 하였고, 『고려사』에는 “**현종 12년(1021) 여름 오월 무자일(戊子日)에 왕이 상서좌상 이가도에게 명하여 경주 고선사의 금가사자와 불정골(佛頂骨), 창림사 불아(佛牙)를 가져와 내전에 함께 안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851년에 모셔온 부처님 치사리(齒舍利)가 855년 창림사 무구정탑에 납입되었다가, 1021년 고려 왕궁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탑에서 출토된 「창림사무구정탑원기」는 추사 김정희가 자신의 문집에 베껴 두었고,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으나, 1968년 경기 이천 영원사의 대웅전 기둥 아래에서 출토되었다가, 2011년 확인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수원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창림사지는 그 유물과 유적이 발견된 범위를 보아 남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절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곳에서는 석탑 외에도 양증맞을 정도로 귀여운 쌍귀부가 남아있다. 곡선이 강조되어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해서 무열왕릉의 귀부와는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 창림사지(경주시 배동 산 6-1. 남간사지 또는 포석정에서 걸어서 15분)



○ 포석정¹¹⁾

사적 1호

포석정은 신라의 멸망을 상징하는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왔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아있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신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좌우에서는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신이 나타나 앞에서 춤을 추니 왕도 춤을 추면서 형상을 보았다. 신의 이름을 상심이라고도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은 이 춤을 전해서 어무상심 또는 어무산신이라 한다”하였다.

또, 55대 경애왕 4년(927) 가을 9월 후백제 견훤은 고을부(영천)를 점령하였다. 경애왕은 위기를 당하여 고려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견훤은 구원병이 미처 이르기 전 겨울 11월 갑자기 서라벌로 쳐들어 왔다. 이때 왕과 왕비, 궁실의 중첩들은 포석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놀고 있어, 적의 군사가 닥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왕은 붙잡혀 군영에 이끌려 나와 평백당하여 자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신라를 타락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역사의 왜곡으로 보인다. 적군이 곧 들이닥칠 급박한 상황에서 이웃 나라에 구원요청을 하고, 겨울에 야외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989년 발견된 『화랑세기』에 의하면, 진평대왕과 세종전군이 포석사(鮑石祠)에 나아갔다는 일화, 문노가 죽자 포석사에 신으로 모셨다는 기사, 김춘추와 문희가 길례(吉禮)를 치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포석정은 호국신을 모시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경애왕도 이곳에서 호국신에게 제사지내고 기도하다 견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리라.

구불구불한 돌 흙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하고 그 위에 술잔을 띄웠다는 것은 제례 의식을 행하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유상곡수의 연화는 353년 3월 중국 동진의 난정에서 왕희지가 행했던 기록이 있으나, 동양 삼국에서 남아 있는 유상곡수의 흔적은 포석정 유구가 가장 오래되었다.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지마왕릉^⑫

사적 221호

지마이사금(재위 112~134)은 5대 파사이사금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아 23년간 재위하면서 가야·왜구·말갈의 침입을 막았다. 무덤의 외형은 비교적 규모가 큰 원형봉토분으로 남산에서 뻗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 만들었을 뿐 별다른 특징이 없다. 왕릉은 1730년경 박씨 중종에서 열조(烈祖) 현창사업으로 지정하였다.

📍 경주시 배동 483-1



태진지^⑬

태진지는 남산기슭에 조성해 놓은 생태공원이다. 작은 연못을 중심으로 수생식물들이 가지런히 계절마다 제 멋을 뽐낸다. 구상나무, 산철쭉, 꽃장포, 왕원추리, 제비꽃, 남개연, 부레옥잠, 세모고랭이, 구름미, 나리아재비 등을 볼 수 있다. 하늘과 산, 나무, 꽃들이 연못과 어우러져 그윽한 풍경을 만드는 '곳, 데크와 지붕있는 정자, 벤치가 곳곳에 있어 잠시 앉아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다.



📍 삼불사주차장(경주시 포석로 692-25)에서 걸어서 2분

○ 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¹⁴⁾

보물 63호



삼불사 옆에 있는 이 석불은 주변에 흩어져 묻혀 있던 것을 1923년 지금의 자리에 모아 세운 것이다. 본존불은 높이 2.75m이며 좌우의 보살상은 높이 2.28m, 2.2m 이다. 삼존이 모두 명랑하고 천진스러워 아기들처럼 보인다. 풍만한 얼굴에 크게 반원을 그린 눈썹이 깊이 패어졌고, 그 밑에 눈두덩이 부풀어 올라 가느스름한 눈자위에 그늘을 지우면서 두 눈이 천진스럽게 웃음 짓는다. 짧은 코 아래 두툽한 입술, 그 양가에 언덕을 이룬 두 뺨에 화사한 미소가 피어난다. 두 눈썹 사이에 백호가 뚜렷하고, 나발은 구슬띠처럼 표현되어 있다. 네모난 발은 평평하게 대좌를 밟아 편안하고, 두꺼운 가사에는 굵은 옷주름이 등성등성 U자형의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다. 수인은 시무외인(施無畏印: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약속)과 시여원인(施與願印: 원하는 바를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삼국시대 불상은 대개 이러한 수인을 하고 있는데 통인이라 한다. 좌협시보살상의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왼손은 정병을 힘껏 움켜쥐고 있다. 가느스름한 작은 눈이며 조용한 코, 상현달 모양으로 내민 입술은 모두 조그맣게 표현된 데 비해 두 뺨은 날따라게 언덕을 이루었다. 보름달 같이 둥그런 얼굴에 부드럽고도 강한 미소가 넘친다. 두광은 장식이 없고 머리에는 관대를 두르고 삼면두식(三面頭飾)으로 장식되었다. 목에는 세 개의 영락(瓔珞)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가슴에는 승기지가 비스듬하게 가려져 있다. 우협시보살상은 이중의 연화대 위에 서서 오른손은 영락을 잡고 왼손은 경책을 쥐고 있다. 몸은 삼굴자세를 하고 있으며, 어깨는 약간 움츠리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눈은 가느스름하여 두 눈에 웃음이 서려있고, 코는 삼각형으로 짧고 입술은 조금 큰 편인데 양쪽 가장자리가 깊게 파어져 두 뺨에 언덕을 이루면서 부드러운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둥근 두광의 테두리에는 두 줄의 선을 돌리고 5구의 화불을 새겨놓은 것이 특이하다. 세 줄로 된 영락은 아래쪽에 큰 연꽃이 한 송이 달려 있고, 허리를 감은 군의(裙衣) 자락을 동여맨 끈이 화려하게 드리워져 있다. 본존불과 좌협시 보살은 7세기 중엽, 우협시 보살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고신라불상의 대표작이다.

경주시 포석로 692-25

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이 세 왕릉은 아래서부터 8대 아달라왕(154~184), 53대 신덕왕(912~917), 54대 경명왕(917~924)의 능으로 주변이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능의 구조는 신덕왕릉이 1935년 도굴된 후 조사에 의하면, 깎은 돌로 축조한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으로 확인되어 모두 횡혈식석실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실(玄室:주검이 안치되어 있는 방)은 정방형을 하고 있으며, 남벽 중앙에 널길을 설치하였고, 높이 35cm, 길이 2m의 자연석 시상대가 놓여 있어 합장릉으로 보인다. 무덤 내부의 북·동·서 벽면에 높이 1.4m 높이로 12폭을 상하로 나누어 24면에 일정한 순서 없이 주·황·백·군청·감청의 5색을 배색하였다. 이는 신라 고분에서 채색이 확인된 유일한 무덤이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 왕릉들은 1730년경 박씨 종중에서 열조(烈祖) 현창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왕의 장지 기록은 없으며, 신덕왕은 '죽성에 장사 지냈다(『삼국유사』에는 화장하여 잠현 남쪽에 묻었다)'고 하였으며, 경명왕은 '황복사 북쪽에서 장사지냈다(『삼국유사』에는 황복사 북쪽에서 화장하여 성등인산 서쪽에 뿌렸다)'고 하였다.



📍 서남산주차장(경주시 포석로 647)에서 걸어서 4분

